

野, 광주·전남 경선 대결구도 윤곽

더민주, 친노 좌장 이해찬 탈락...광주서갑 박해자·송갑석 경선

국민의당, 광주 서울 천정배·동남을 박주선·목포 박지원 공천

4·13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여야가 공천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 선거운 253곳 중 25곳에서 여야 3당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3·4·5면>
새누리당은 현재 이날까지 122곳(48.2%)의 공천을 완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37곳(59.2%), 국민의당은 91곳(35.9%)에 20대 총선 후보를 정했다.
◇새누리당=이날 안홍준·정문헌·이예리사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근현·이재영·유재중·김진태·신동우 의원 등 5명의 현역 의원은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3일 밤 당 공관위는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이인제·김용동 최고위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을 경선 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또 정두언·김용태·최경환 의원과 김민수 전 경기지사는 단수 추천됐다. 아울러 여수시에 김성훈, 나주 화순에 김중우,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조성학 예비후보를 각각 단수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친노(친노무현) 진영 좌장적인 6선의 이해찬, 정세균계인 5선 이미경,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조선 정호중 의원의 공천을 배제했다. 이 전 총리의 공천 배제와 관련, 김종민 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언론에 이야기하

느냐.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해자 의원의 광주서갑은 경선 지역으로 지정돼 박 의원과 송갑석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밖에 국민의당 통합·연대 찬성과 의원들의 지역구인 여수시에 백무현, 서울 광진구에 전혜숙,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에 조상기, 김영환 의원의 경기 안산상록에 김철민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당=이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광주 서울), 김한길 의원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또 광주 동남구에 박주선 최고위원, 목포에는 박지원 의원, 서울 성북구에 도전수 전 고대민 주동우회 회장, 성북구에 김인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 서초구에 조순형 전 서울시의원, 송파구에 이태협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상임이사 각각 단수 공천됐다.
이와 함께 광주 동남갑·서갑·북갑·북을·광산갑·광산을, 그리고 전남지역의 여수갑·광양곡성구례·나주화순·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진도완도를 각각 경선지역으로 분류해 후보를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들리나요? 유채밭 사이로 봄 오는 소리 14일 고창 학원농장에 핀 유채꽃 새싹이 봄 햇살을 받으며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내민 채 봄바람을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유채밭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샛길은 마치 페루의 사막이 품은 '나스카 라인'(Nazca Line)을 연상케 하고 있다.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유채밭의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문화산업 규모 年 10% ↑ 업체당 종사자·매출액은 '영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사

광주의 문화산업 규모는 연평균 10%씩 커지고 있지만, 업체당 종사자수나 매출액은 광역시 중 가장 낮아 매우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지역 문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 과제'에 따르면 광주지역 문화산업 규모는 2006년 4230억원에서 2014년 7480억원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9.6%씩 늘었고 사업체 수도 이 기간 469개에서 870개로 연평균 10.7% 증가했다.
이 지역 문화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가 지역내 사업에서 차지하는 문화산업의 비중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사업체수의 경우 0.8%로 대전을 1% 다음이며, 종사자 수는 1.2%로 대전의 2%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 지역 문화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전국 비중은 각각 2%, 1.2%로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 문화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증가율은 10.7%, 6.7%, 9.6%로 광역시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광주지역 문화

산업 업체당 종사자 수는 7.3명으로 부산과 함께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업체당 매출액도 9억원에 불과해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5인미만 업체 비중이 70.3%에 달해 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체 비중도 50.5%로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의 문화산업 육성정책과 문화산업 규모 확대에도 이처럼 문화산업 발전이 부진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문화도시 정체성 부족을 꼽았다. 실제로 광산구청의 광주 대표이미지 조사에서 5·18이나 무등산 등에 대한 응답 비중은 20% 안팎이었지만 문화예술도시 응답은 5%에 그쳤다. 문화콘텐츠 제작규모도 광역시 중 4위에 그쳤고 과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일정 지연으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박지섭 과장은 "문화수도 광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를 '아시아의 파리'로 인식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항공, 광주~제주 노선 4회 증편 추진

주중 28회 → 32회로 늘려

시, 김포 노선 8월까지 준치 요구

광주~김포 노선편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광주~제주간 항공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주중 28회인 광주~제주간 운항횟수를 32회로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하루 2회 운항중인 광주~김포 노선을 오는 27일경 폐지하는 대신 광주~제주편을 4회 늘리겠다는 대안이다.
대한항공이 비행기편을 늘리면 광주~제주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지역민들도 선호노선인어서 공항 활

성화도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김포 노선을 오는 8월까지 준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시는 기존 용산~송정간 KTX 노선에다 오는 8월경 수서발 고속철도까지 개통하면 서울길이 다양해져 김포 노선 폐지에 따른 시민불편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항공사측이 KTX 개통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 불편을 우려해 수서발 KTX 개통시까지만이라도 광주~김포노선을 운항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광주시와 대한항공측의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초·중·고 학생수 내년 20만 명 '붕괴'

올해보다 6000여명 줄어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

내년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 수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광주 초·중·고교생 수는 19만 8000여명으로 올해 20만4000여명보다 6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8만9000명에서 8

만8000명으로, 중학생은 5만1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고교생은 6만3000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에는 학생 수가 18만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 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이어지게 되고 교사 수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향후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표발점점-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5면
- 첼스필드 야외 주차장 조성 논란 ▶6면
-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엔진별 연료 소비량 및 배출가스 : E 200 1,999cc, 1,639kg, 7G-TRONIC PLUS, 배연량(12.0km/9.0도출) 10.8km/9.0, CO2배출량(14.4km/9.0), 3.9g/km, 배연량(14.4km/9.0) 14.4km/9.0, 3.9g/km,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배연량(14.1km/9.0도출) 12.4km/9.0, CO2배출량(17.0km/9.0), 2.8g/km, 배연량(14.4km/9.0) 14.4km/9.0, 2.8g/km, E 300 3,499cc, 1,790kg, 7G-TRONIC PLUS, 배연량(14.7km/9.0도출) 11.8km/9.0, CO2배출량(18.9km/9.0) 11.8km/9.0, E 300 4MATIC 3,499cc, 1,800kg, 7G-TRONIC PLUS, 배연량(14.7km/9.0도출) 11.8km/9.0, CO2배출량(18.9km/9.0) 11.8km/9.0, E 350 BlueTEC 4MATIC 2,987cc, 2,045kg, 7G-TRONIC PLUS, 배연량(12.6km/9.0도출) 11.2km/9.0, CO2배출량(14.7km/9.0), 3.0g/km, 배연량(14.4km/9.0) 14.4km/9.0, E 400 4MATIC 2,999cc, 1,935kg, 7G-TRONIC PLUS, 배연량(14.7km/9.0도출) 11.8km/9.0, CO2배출량(18.9km/9.0) 11.8km/9.0,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배연량(17.6km/9.0도출) 16.5km/9.0, CO2배출량(23.0km/9.0), 5.0g/km, 배연량(14.4km/9.0) 14.4km/9.0,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배연량(17.6km/9.0도출) 16.5km/9.0, CO2배출량(23.0km/9.0), 5.0g/km, 배연량(14.4km/9.0) 14.4km/9.0

Mercedes-Benz